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소식

발행인: 허선 편집인: 손태서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 전화: 02)794-4146 FAX: 02)794-3146 www.kamje.or.kr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SCIE 등재기

한국한의학연구원 (IMR부편집장) 이명수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이하 IMR)은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양방) 융합의학의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하는 통합의료 분야의 국제 학술지이다. IMR은 2012년 창간호부터 엘스비어 출판사를 통해 연 4회의 Open Access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Clarivate Analytics로부터 2019년 11월에 SCIE 등재 확인을 받은 후 최근 2020년 6월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2.172로 공표되어 통합 및 보완의학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발간을 시작한지 약 8년 만에 국제학술 저널로 발돋움하게 되었기에, IMR의 SCIE 등재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점들에 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주제의 일관성 및 형식의 표준화

저널의 발간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논문주제들에 대하여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 초록 및 본문의 형식을 EQUATOR 등의 보고 가이드에 준하여 출간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일관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편집진들의 리소스 절약 및 출간 소요시간 단축

편집진들의 물리적, 시간적 에너지소비는 최소화하고, 저자들에게는 신속하게 재투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논문의 주제 및 형식, 내용의 신규성, 진보성, 창의성 등이 규정에 부합하여야 본격적인 동료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부분은 저널운영의 효율화에 중요한 부분으로 발간 통계수치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리뷰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고, 출간승인 후에는 신속하게 출간이 될 수 있도록 출판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IMR의 경우, 2020년 현재 1st decision은 1.9주내에서 이루어지고, 논문 게재확정 3일후 저자가 교정쇄(프루프)를 받고, 7일내에 온라인 출간이 된다.

3.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서의 편집진

몇 해 전 필자는 엘스비어코리아 주최 'Lancet 에디터의 논문작성 워크샵'에 참가하여 Lancet은 출간할 만한 주제나 연구는 영어나 구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에디터들이 Lancet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인상깊은 강의를 들은 바 있어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 필자는 편집진과 리뷰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독자 간의 명료한 소통에 최대한 조력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최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투고된 모든 논문들은 편집진에 의해 정독된 후, 충분한 적절성이 확보된 연구에 대해서는 수차례 수정보완을 통하여 논문화를 진행하였다.

4. 저명한 학자들의 편집진 영입 및 초청 리뷰 게재 활성화, 유관학회 참석을 통한 노출 향상

해당 연구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분들을 편집진에 영입하고, 초청 리뷰논문을 게재하여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국제 유관학회에 IMR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자 모임에 노출빈도를 높여 전세계에서 논문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게 하였다.

5. 편집인들의 전문교육을 통한 SCIE 등재 절차 숙지 및 출판사와 긴밀한 협의

과학기술인편집인위원회 등에서 개최하는 전문교육이수를 통해 SCIE 등재를 위한 절차 및 전략들을 숙지하고, 출판사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필수적인 사항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저널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편집진들이 국제출판 기준을 잘 준수하며, 투고된 연구논문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있어 멘토와 조력자 역할을 통하여 IMR화 하는 작업들이 SCIE로 등재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코리아메드 시냅스의 참여개방정책

한림의대, 회장 허선

2020년 8월 24일 기준으로 지난 3월까지 KoreaMed Synapse (이후 시냅스) 참여하였던 단체회원 가운데 시냅스 참여 동의서(agreement)를 의편협에 기탁한 회원은 75% 남짓하고 나머지 단체회원은 출판사로부터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 참여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시냅스 참여의 의의

의편협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코리아메드 등재지인 경우 모든 단체회원에게 시냅스 참여를 개방하였으므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동참하기를 권한다. 구글 스칼라에서는 코리아메드와 시냅스를 매우 높이 평가하므로 구글을 통하여 회원학술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외국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국내학술지인 인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연히 모든 기탁한 파일은 학회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학회 사이 연대, 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시냅스는 구글을 통하여 전 세계로 나가는 창문임을 잘 이해하여 반드시 참여하여 학술지 발전에 기틀로 삼기를 양망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학술지 논문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읽히고 인용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여 인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왜 참여하지 못할까?

학회가 시냅스에 참여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학회의 자유의사다. 문제는 그 불참 사유가 학회가 자발적으로 시냅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과거 시냅스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와 계약에 따라 운영하던 특정 회사의 "XML 파일 제공 거절"이라면 학회는 앞으로 닥칠 불이익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불참 학술지를 두 종류로 나누면 먼저, 첫째 PMC(Pubmed Central) 등재지이다. 두 번째는 국문지 이거나 PMC 미등재 영문지인 경우이다. PMC 등재지는 추후 JATS XML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으나, 미등재인 경우 결국 특정 회사가 XML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나중에 회사를 변경하거나 학회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기탁을 위하여 파일이 필요할 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XML 제작회사를 변경하려고 할 때 과거 회사로부터 전문 XML 파일을 받지 못하면 복구 방법이 없다.

JATS XML 저작권은 누가 가지나?

의편협이 모든 회원단체는 의편협 정관에 있는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PMC와 같은 외국 데이터베이스에는 XML 파일을 제공하면서 학회가 원함에도 국내에서 운영하는 시냅스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의학학술지 편집 및 평가와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국제교류" 사업의 목적으로 코리아메드와 시냅스를 운영하였다. 지금의 사안은 2006년 정보관리위원장으로 일할 때, PMC XML 제작 방법을 의편협 직원과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가르치고 각 학회에 PMC XML 작업을 독려하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책임이 크다. 즉, 기술을 전수하였지만 2011년 임원진에서 떠난 뒤 9년간 가슴 아프게도 많은 학회가 손해를 입었다. 지난 일에는 여러 학회에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 그러나 더 이상 XML 파일의 저작권에 대하여 학회가 손해를 보는 것은 현 집행부에서 원치 않는다. XML 파일 저작권은 학회가 경비를 대고 만든 것이므로 학회가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발행

한 것보다 미래에 발행할 분량이 더 큰 자명하다. 반드시 학회에 불이익이 없는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

지금까지 시넵스 XML 파일을 의편협이 돌려받지 못하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의편협이 시넵스 파일 제작경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각 회원단체가 지출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각 학회가 요청하여야 한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각 회원단체가 과거 자료를 돌려받기 원한다면 의편협의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거 학회 경비로 작업한 시넵스 파일을 돌려받기 원하는 학회는 의편협에 연락하기 바란다.

의편협 특별회원 소개

의편협의 특별회원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거목문화사	홈페이지	https://www.guhmok.com
연락처	02-2277-3324	이메일	guhmok@guhmok.com

거목문화사는 1989년 창립 이래 30여년간 학술 전문 출판사로 70여개의 학술지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목은 학술출판 One-Stop 서비스를 구축하여 투고시스템, 편집, 교정, ME, xml, doi, 학술지 홈페이지 관리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목은 Crossref의 Sponsoring Organization으로 DOI, Crossmark, Funding data, Cited-by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며, PubMed Central에도 논문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대회 홈페이지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목에서 모든 것을 한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편집국의 업무가 감소함과 동시에 비용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모든 것을 거목에서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단순히 학술지 출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다수의 학술지와 SCIE, SCOPUS, KCI, 과총 등의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원고를 작성하시고 심사하시는 것은 저자와 편집위원회의 역할이지만, 거목은 다른 모든 출판 과정에서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메드랑 · 인포랑	홈페이지	메드랑: www.medrang.co.kr 인포랑: work.inforang.com 닥터랑: www.drrang.com
연락처	02-325-2093	이메일	info@medrang.co.kr info@inforang.com

메드랑 · 인포랑은 국제 의학 회의 · 저널 · IT 전문 서비스 그룹으로 1975년 의학 학술지 간행을 시작으로 45년간 [학술회의], [저널발행], [IT솔루션] 등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술회의] 다변화된 환경에 맞춰진 온+오프라인 행사 전문가, 디자인컨셉, 홍보, 운영,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사운영 관리의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널발행] 연간 127종 이상의 의학저널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 · 국내 등재 기준과 저널 트렌드에 맞춘 편집디자인 및 저널분석, ME컨설팅, 논문홍보(SNS)를 통해 학술지 Quality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IT솔루션] 연간 200개 이상의 학회 · 행사 · 저널/투고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갑자기 도래한 언택트 시대에 한발 앞서 준비한 e-Conference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온라인 학회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명	에세이리뷰(EssayReview)	홈페이지	https://essayreview.co.kr
연락처	1522-9180 (사무실) 010-7392-5528 (정원진 팀장)	이메일	sales@essayreview.co.kr (정원진 팀장)

에세이리뷰(EssayReview)는 215개 학문 분야 별로 전문성 높은 원어민 석박사급 에디터들을 통해 SCI급 국제저널 투고 논문을 위한 글로벌 학술 영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연세대, 2019년/2020년 서강대, 2020년 중앙대 국제저널 투고 논문교정 지원사업 경쟁 입찰에서 1위 업체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주요 대학교, 의료기관, 학회와의 정식 협약을 통해 뛰어난 서비스 경쟁력을 널리 검증받고 있으며, 한국 외에도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터키 등 글로벌 6개국 5만 2천 명 이상의 고객들로부터 평균 평점 4.7/5.0 이상의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충북대병원,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과 정식 협약을 체결하여 의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학술 영문교정 전문성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명	에이퍼브	홈페이지	http://www.apub.kr/
연락처	02-2274-3666	이메일	master@apub.kr

주식회사 에이퍼브는 현재 60여 개의 학회지를 출판하고 있는 학술출판 IT 서비스 전문회사입니다. 저희는 학술지 질적 향상에 필수적인 편집 요소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IT 서비스 -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저널홈페이지 - 와 비대면 학술발표회를 포함한 학술발표회 IT 솔루션,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 등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증대와 학회 업무효율성 제고'. 저희가 학회에 드리고자 하는 서비스 목표입니다.

회사명	이나고	홈페이지	www.enago.co.kr
연락처	1577-2592	이메일	enago@enago.co.kr

이나고는 125 개국의 200만명 이상 저자들을 지원하여 훌륭한 연구 논문이 세계적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영문교정, 논문 번역 및 출판 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논문 출판 관련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출판사가 추천하는 이나고 영문교정 서비스는 국내 많은 대학교에서도 이용하고 있으며, 99.4%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의 석·박사 출신 에디터의 평균 경력은 19.4년으로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명의 에디터 시스템은 의뢰한 연구 논문과 동일한 학술분야 출신 에디터 두명이 과학적, 언어적 교정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최고의 품질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Compecs	홈페이지	http://www.compecs.com
연락처	010-4785-3425	이메일	compecs@compecs.com

Compecs는 영어논문 작성 첫 단계에서 마지막 교정/발표 단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는 Total Academic Solution Provider입니다.

Training: 논문/논문심사평 작성/국제학술대회발표/영어강의 교수법 관련 워크숍 진행

Translation/editing: 영어적 표현 및 논리 구조 검토, 문장과 문단의 자연스러운 연결 체크,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어법 수정. 사실적/방법론적인 오류, 혹은 내용상 모순이 발견될 시에는 코멘트로 표시

Consultation: 목표 학술지의 논문 분석, 데이터 정리 방법, 각 섹션 별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정리, 심사평 대처방안, 학술지와 의사소통 방법, 국제학술대회 발표연습 등 모든 영역 가능

SJR 2019, CiteScore 2019 공개

회원님, 안녕하세요?

2019 SJR (<https://www.scimagojr.com/>) 과

CiteScore 2019 (<https://www.scopus.com/sources?zone=TopNavBar&origin=sbrowse>)가 공개되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reaMed 검색 오류 보고 안내

새로운 KoreaMed 홈페이지(<https://www.koreamed.org/>)에서 검색과정 중 오류 보고나 문의는 이메일(koreamed@kamje.or.kr) 로 전달 하시거나, KoreaMed 첫 화면의 우측 상단에 'Query Report'를 클릭하여 전달해 주십시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NKI 등재 안내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는 중국 DB로, CNKI에 등재를 원하는 국내 학술지는 심사받아 등재가 가능하기에 영향력 지표를 높이려는 학술지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술지 편집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자세한 첨부 파일은 의편협 홈페이지(<https://www.kamje.or.kr/>)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ng ZHANG

Co-operation Project Manager

CNKI Global Academic Resources Integrated Service Division

Tel: (86) 10 6270 1850

(86) 139 9420 3352

Email: zf13311@cnki.net; fangzhang_@outlook.com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2020년 9월 현재 272종 학술지이며, 개인회원은 42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거목문화사, 광문출판사, 네이버(주), 도큐헛(주), 디자인메카,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카데미아, 에디티지, 에이퍼브,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주)워드바이스, 이월드에디팅(Eworld Editing), 인권앤파트너스, 진기획(주)제이피앤씨, 크림슨인터랙티브 코리아(이나고), (주)Compecs, InfoLumi, iMIS Company, XMLink(주) 등 총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의편협 사무국(Tel: 02-794-4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